

# 불교TV 설맞이 프로그램 '풍성'

## '금오대선사 다큐멘터리' '봉은사 365일' 등

올해 설날은 최소 5일 이상을 설 수 있는 황금 연휴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병신년 설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으로는 금오선사의 수행관과 사상을 알아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와 강남불교 1번지 봉은사의 1년을 담은 <봉은사 365일> 등이다.



BTN불교TV 설 프로그램 다큐 '봉은사 365일'의 한 장면.

금오선사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다큐멘터리 <한국불교 비상의 큰날 개 금오대선사>는 2월 7일 오전 8시 50분에 시청자를 찾아간다. 또한 2월 8일 오후 12시 20분, 2월 10일 오후 4시 50분에도 만나볼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발심한 순간이 궁극적 깨달음'이라는 선사의 가르침과 한국불교사의 큰 족적을 남긴 스님의 생애, 수행관, 계율관 등을 통해 납자들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만나 볼 수 있는 법문 프로그램 '타락한 스님 방한특집 월정사 명상수행 법문 1~4부'도 마련된다. BTN은 2월 7일 저녁 9시 50분, 10시 50분에 1, 2부를 2월 8, 9일 저녁 9시에 3, 4부를 잇달아 방영한다.

이밖에도 교종 수사찰 운악산 봉선사의 새해맞이 타종식의 현장 녹화 중계인 '운악산 봉선사 새해맞이 타종식(2월 7일 오전 8시 50분, 2월 9일 오후 7시 30분, 2월 10일 오후 1시 20분)'을 비롯해 고려불화대전 준비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아, 고려불화(2월 9일 오후 10시, 2월 14일 오후 8시 50분)', 구글 엔지니어이자 명상가인 채드맹탄과 힐링 멘토 헤닌 스님의 만남을 다룬 '헤닌 스님, 차드맹탄과 떠나는 내면검색 여행(2월 8일 오후 4시 50분, 2월 12일 오전 7시 30분)' 등이 설 연휴 동안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이밖에도 교종 수사찰 운악산 봉선사의 새해맞이 타종식의 현장 녹화 중계인 '운악산 봉선사 새해맞이 타종식(2월 7일 오전 8시 50분, 2월 9일 오후 7시 30분, 2월 10일 오후 1시 20분)'을 비롯해 고려불화대전 준비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아, 고려불화(2월 9일 오후 10시, 2월 14일 오후 8시 50분)', 구글 엔지니어이자 명상가인 채드맹탄과 힐링 멘토 헤닌 스님의 만남을 다룬 '헤닌 스님, 차드맹탄과 떠나는 내면검색 여행(2월 8일 오후 4시 50분, 2월 12일 오전 7시 30분)' 등이 설 연휴 동안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2013년 5월 방한해 '힐링·상생·행복'을 주제로 대중과 만났던 세계적 명상지도자 탁남한 스님을

다. 기획특별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 (2/3, 2/17), 테마전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2/17) 등의 특별전에 대한 해설도 운영된다. 이밖에도 '소장품의 안전한 포장과 보관' (역사의 길, 2/3), '누구 세공 기술의 이해' (신라실, 2/17) 등 소장품 관리와 보존과학 분야 전문가의 해설도 들을 수 있다.

관람객과 박물관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틀버스는 회사 단체(20명 이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관람객과 박물관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틀버스는 회사 단체(20명 이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국립중앙博, 2월 '큐레이터 대화'

## 새 단장 고려실 집중 소개 예정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2월 동안 전시설명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박물관 큐레이터들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2월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2016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단장한 고려실에 대한 부분이다. 보존처리를 마친 대형 철불과 새로이 발굴된 소형 불상, 역사 자료 등 200여점 이상의 유물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려실에서 '새롭게 개편한 고려실' (고려2실, 2/3), '고려의 지방 세력과 거대 석불' (고려1실, 2/17)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월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2016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단장한 고려실에 대한 부분이다. 보존처리를 마친 대형 철불과 새로이 발굴된 소형 불상, 역사 자료 등 200여점 이상의 유물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려실에서 '새롭게 개편한 고려실' (고려2실, 2/3), '고려의 지방 세력과 거대 석불' (고려1실, 2/17)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월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2016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단장한 고려실에 대한 부분이다. 보존처리를 마친 대형 철불과 새로이 발굴된 소형 불상, 역사 자료 등 200여점 이상의 유물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려실에서 '새롭게 개편한 고려실' (고려2실, 2/3), '고려의 지방 세력과 거대 석불' (고려1실, 2/17)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보존처리를 마친 대형 철불과 새로이 발굴된 소형 불상, 역사 자료 등 200여점 이상의 유물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려실에서 '새롭게 개편한 고려실' (고려2실, 2/3), '고려의 지방 세력과 거대 석불' (고려1실, 2/17)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보존처리를 마친 대형 철불과 새로이 발굴된 소형 불상, 역사 자료 등 200여점 이상의 유물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려실에서 '새롭게 개편한 고려실' (고려2실, 2/3), '고려의 지방 세력과 거대 석불' (고려1실, 2/17)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 반출 문화재 만나GO~ 손오공과 놀GO~

## 강원 불교계 주목 전시 2곳

### 월정사 성보박물관 3월까지 '미국 유출 문화재 재현전' 나우회 작가 참여... 20여 작품 전시

### 명주사 고관화박물관 5월 15일까지 '붉은열정-손오공展' 韓中日 손오공 판화 70여점 '눈길'



명주사 고관화박물관 서유기 특별전을 통해 처음 일반에 공개되는 '채색 서유기 육필 년화.' 가로 220cm, 세로 90cm의 대형 작품 안에는 손오공과 홍매이의 대결 내용이 담겨 있다.

2016년을 맞아 강원 지역 불교 박물관을 중심으로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주제도 미국 유출 문화재 재현부터 손오공까지 다양하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 산하 나우회 회원작가들과 함께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월정사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미국 유출 문화재 재현전'을 연다.

6번째 전통문화의 틀레길 만들기 기획 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불교 전승 작가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나우회 작가는 11명으로 총 2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주요 작품으로는 이연옥 씨의 지장시왕도(미국 LA카운티박물관 소장), 이문희 씨의 청허당대사(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한봉석 씨의 당사자상(호놀룰루박물관 소장), 노정용 씨의 목조동자상(LA카운티박물관 소장), 박명옥 씨의 수월관음도(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주광관 씨의 '회(回)' (LA카운티박물관 소장 철조여래좌상), 김형진 씨의 'REMEMBER'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가섭존자와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 숫자 형상화) 등이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현재 외국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된 유물은 그 취득 경위의 위법성을 밝히기 전까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도난 유물은 환수되고는 있지만 성과는 미비하다"면서 "나우회에서는 당장 환수가 어려운 유물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전승 작가들이 재현하여 국민들에게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033)339-6633

붉은 원숭이해를 맞아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을 조명하는 전시회도 열린다. 치악산 명주사 고관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2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붉은 열정 손오공 특별전'을 2016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서유기>는 돌원숭이 손오공이 현장 법사를 도와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려는 구법행을 그리고 있다. 특히 <서유기>는 불교와 도교, 민간신앙의 융합체 동양 판타지 문학의 전범이기도 하다.

서유기 특별전은 '아시아에서 원숭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 인도와 태국의 허누만 석판화와 탁본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의 서유기 목판본과 목판 년화, 우기요에 등 70여 점의 작품이 한 자리에 전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전시 유물 중에는 고관화박물관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희귀 육필 년화도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가로 220cm, 세로 90cm의 천에 그려진 채색 서유기 육필 년화는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서유기 고사도로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 사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육필 년화의 내용은 40~42회의 내용으로 요괴 홍매이의 삼매진화(불을 내뿜는 공격) 공격에 진 손오공이 관음보살의 역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오른쪽에는 홍매이는 불법에 귀의해 선재동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이 개최하는 미국 유출 문화재 재현전에 출품된 나우회 작가 박명옥 씨의 수월관음도.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된 작품을 새롭게 해석했다.



미국 LA카운티박물관 소장된 지장시왕도를 재현한 이연옥 씨의 작품.

관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희귀 육필 년화도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가로 220cm, 세로 90cm의 천에 그려진 채색 서유기 육필 년화는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서유기 고사도로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 사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육필 년화의 내용은 40~42회의 내용으로 요괴 홍매이의 삼매진화(불을 내뿜는 공격) 공격에 진 손오공이 관음보살의 역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오른쪽에는 홍매이는 불법에 귀의해 선재동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이번 근현대 시기 우키노에에 담긴 손오공과 중국 목판 중 '피마온(避馬瘟)'이란 용어가 들어있는 부적 년화도 눈여겨 볼만 하다.

고관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민족에게 원숭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불교적으로는 열정과 헌신의 동물이기도 하다"면서 "손오공의 열정과 희망의 정신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회 기간 동안 고관화박물관은 손오공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교육과 2월 4~5일에는 원주 시청 로비에서 새해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원숭이 판화 인출체험행사를 무료로 연다. (033)761-7885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사찰음식점 발우공양, 새단장 '눈길'

## 2월 한 달간 응모권 추첨도

2009년 개점 이래 사찰음식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해온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이 3개월여의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호)는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이 리뉴얼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발우공양은 간장과 된장을 기본으로 제철

식재료를 사용, 계절마다 다른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발우공양의 모든 메뉴는 코스로 구성되며 선식(禪食), 원식(願食), 염식(念食), 희식(喜食) 중 선택할 수 있다. 2월까지 제공되는 겨울메뉴는 쫄쫄죽·고구마죽(강화도 호박고구마)·사과고추장을 곁들인 연근과래전·호두만두·더덕자점무침 등이다. 또한 한상차림으로 제공되는 식사에는 연잎밥과 연자점국밥 중 선택할 수

으며, 사찰간장으로 담긴 장아찌와 오신채를 넣지 않은 사찰김치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과일과 표고버섯만으로 맛을 낸 매콤한 사찰 냉면과 7년 숙성된 감식초, 파주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찰간장에 숙성시킨 두부장 등 사찰에서만 맛볼 수 있던 특색 있는 사찰음식을 선보인다. 계절후식으로는 유자화채와 홍시구름, 도라지 정과가 제공된다. 영업시간은 점심 오전 11시 30분~오후 3시, 저녁 오후 6~10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성호 스님은 "사찰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모든 과정을 수행으로 여긴다. 발우공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정직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바쁜 생활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발우공양은 이번 재오픈을 기념해 2월 한 달간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응모권 추첨을 한다. 상품은 템플스테이 체험권(1인 2매 14만원 상당), 사찰음식 레시피북, 원숭이해 기념 노트 및 필통 세트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발우공양 공식 홈페이지(www.balwo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집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 작품크기 30cm×30cm (액자전체 50cm×40cm)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령서를 드립니다.
- 활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로는 99% 황금색임

##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cm×30cm (액자전체 50cm×40cm)
- 청국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 128,000원 (액자 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 78,000원 (액자 포함)
- 나 한 도 족 자 : 100,000원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神通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나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선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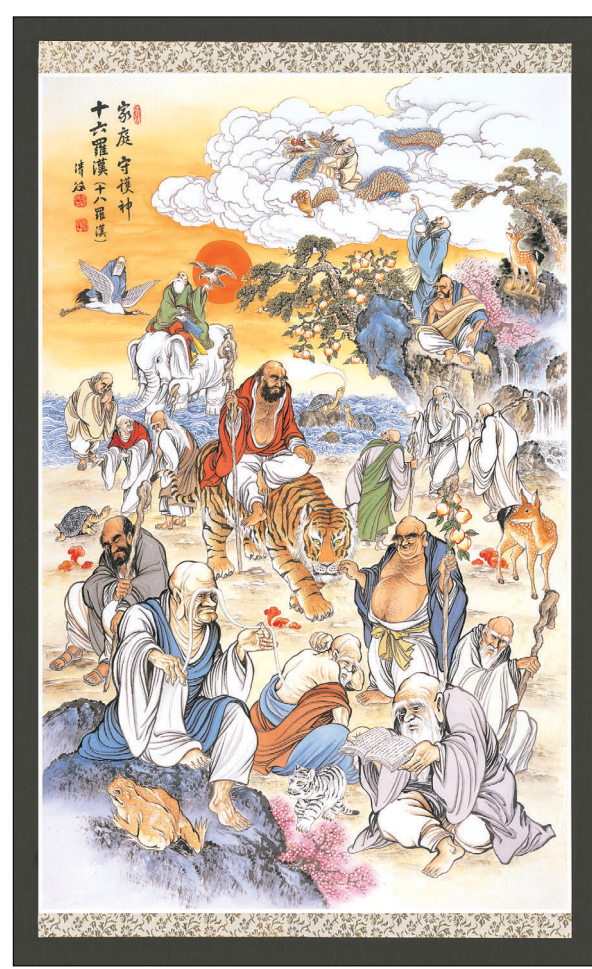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한국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인 청국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진품 소림 달마도



나한도 족자

■ 제작 : 중국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위원장 청국 | ■ 판매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3 (수제 작업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